**마1914 Note**

**◆도우미 ; 어린 아이들 - 안젤리카(Angelica) 간증과 관련하여**

★안젤리카(Angelica) ;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에게 보여 줄 것인데 볼 준비가 되었느냐?” <중략>

주님과 제가 그 곳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곳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거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단다.”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구요? 어째서 왜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에 이르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 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니라 그것은 진리니라. 그러나 아이들도 반드시 내게로

와야 한다. 왜냐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기 때문이란다.”

즉시, 예수님께서 제게 8살 먹은 남자 아이가 불길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

다. 그 소년은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저는 여기

에 있고 싶지 않아요! ”

그 소년은 계속 울면서 비명을 질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 주변에 만화 인물들과 닮아

보이는 마귀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드래곤, 보이즈, 벤 10, 포키몬, 도랄 등등이

있었습니다.

“주님, 왜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게 이 아이의 생애를 담은 큰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만화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TV 앞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딸아, TV에서 매일 보여주는 에니메이션 만화, 영화, 드라마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도구들이란다 ”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 딸아, 보아라 어떻게 되는지

를.”

저는 그 소년이 부모님을 향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그 아이는 불순종하고 물건을 던지며 도망갔습니

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뒤 어떤 차가 그 소년을 치었고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나게 되었

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란다.”

저는 그 아이가 고통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딸아, 가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말씀이 말한 대로 교육하라고 전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녀들을 아무 때가 아닌 오직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때에만 징계하는

회초리를 통해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잠언 22:15)

잠2215. 어리석음이 아이(나아르: 소년,소녀,유년기에서 청년까지,하인,유아,어린이,처녀)의 마음 안에 매여 있느니라 (카솨르:매다,묶다,허리를 졸라매다,감금하다,죄다,공모를 꾸미다,공모자로 만들다,합세하다,짜맞추다,더 강하게 하다,반역을 행하다), 그러나 바로잡음의 회초리가 그것을 그로부터 멀리 몰아내느니라.

주님은 제게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만화 영화 때문에, 반항 때문에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많단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만화영화가 지옥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반항과 불순종, 분쟁과 미움 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마귀들이기 때

문이란다. 결국 다른 마귀들이 이러한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선행보다는 악행을 일삼도

록 만든단다. 아이들이 TV를 통해 보는 무엇이든지 현실에서도 그대로 따라 하길 원하

게 만들지.”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현실입니다.

어린 아이들 조차도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왜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와야 하는 거

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지식을 얻게 되면, 그 때는 그들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단다.”

Ω마1913. 그때에 그분께로 어린 아이들(파이디온:유아,반쯤 자란 소년 또는 소녀,송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작은 아이,어린 아이,처녀/ 호크마 주석: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데려와졌으니, 이는 그분께서 저들 위에 그분의 손들을 얹고, 기도하시게 하기 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니라.

Ω막1013. 그리고 그분께서 저들을 만지도록, 그들이 어린 아이들(파이디온:유아,반쯤 자란 소년 또는 소녀,송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작은 아이,어린 아이,처녀/ 호크마 주석: 7세 이하의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니라. 이에 그분 제자들이 저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으니라.

마 19:13 이나 막 10:13 등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헬라어 원어에 "어린아이"의 단어가 7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아" 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산된 애기들이나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 나이인 8세 이상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주안에서의 각별한 가르침

이 필요합니다.

잠2011. 아이(나아르: 소년,소녀,유년기에서 청년까지,하인,유아,어린이,처녀) 조차도 그의 일이 결백한지, 또 그것이 올바른지를 그의 행실(마알랄:행동,일하기)들에 의해 알려지느니라.